

“한문경전 오류, 팔리어경전 대조로 보완을”

“출가자 위의 확립 시급해”

조계종 교육원 ‘초기불교 교수법 연찬회’ 성료

학인 스님들에게 초기불교의 이해와 교수법에 관해 지도하는 연찬회가 2월 20-21일 이틀간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법정)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찬회에는 100여 명의 학인 스님들이 모인 가운데 초기불교 전공 교수와 스님들을 초빙해 교육 노하우 및 초기불교를 이해하는 방법론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법 연찬회 첫 번째 시간에는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이 ‘초기 불교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주제로 강의했다.

재연 스님은 먼저 초기경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역사적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학계에서 말하는 초기불교의 범위는 부처님 열반 후 제자들의 제1차 결집을 거쳐 아쇼카 대왕 재위 시절 목갈리뿌따 밋사(Moggali-putta Tissa: 기원전 3세기 중엽)가 주도한 제3차 결집까지를 통틀어 규정하고 있다”고 말한 뒤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과 열반 성취를 위한 길을 바르게 익히기 위해서는 초기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불교 교육은 부처님 제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에도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초기경전을 가르칠 때, 첫째 경

전의 성립과 주요 논쟁의 핵심 및 흐름을 파악하게 하는 것, 둘째 사성제·팔정도를 유기적으로 이해시키는 것, 셋째 사마타 위빠사나(Samatha-vipassana) 수행과 관련된 경전들을 선별해 익히고 내용을 숙지해 하는 것, 넷째 팔리어 및 산스크리

한역 <아함경>과 팔리어 경전이 상호 보완자료임을 아는 것 중요
초기불교 교육은 부처님 제자라는 정체성 확립에도 꼭 필요한 과정

트어 사전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문법을 익히게 하는 것 등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재연 스님은 “한문번역에도 오류가 많다. 한문 경전만 보면 안 된다”고 전제하고 “한역 <아함경>과 팔리어 경전이 상호 보완자료임을 알고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교에 관한 모든 논의의 근거를 경전, 즉 일차자료에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연 스님 강의에 이어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김재성 교수는 ‘초기경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주제로 초기불교를 연구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은 ‘초기불교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하는 학자들의 입장과 사성제에 입각한 경전 읽기에 대해 설명했다. 경성대학교 권오민 교수는 ‘아비달마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 아비달마는 무엇이고, 왜 학습해야 하는지를 강의했다. 인도 뽀나대에서 초기불교를 전공한 등현 스님은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의 관계’로 초기불교의 오문무아(五蘊無我)와 반야심경의 오온개공(五蘊皆空)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초기불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통해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삼특상(三特相)과 삼법인(三法印)을 조망했다.

한편,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초기불교가 당파성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대승불교 및 선불교와 유기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지 모색될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팔리 경전 역경(譯經)사업에 힘입어 일반 재가자들 사이에서도 초기불교가 널리 알려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조계종 교육원은 승가교육 제도개편에 따라 승가대학과 협의해서 초기불교를 교과목으로 편제시키고 학인들을 교육시킬 방침이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한 · 일 연구자 인도불교 조명

금강대 불교문화연구, 日 도쿄대 학자 초청강연 및 집중 워크숍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은 2월 18-19일 일본 불교학계의 신진학자 3명을 초청해 금강대에서 초청강연회 및 집중워크숍을 개최했다.

‘인도불교의 마음에 대하여’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다카하시 고이치(日 도쿄대) 특임 연구원이 ‘바웃 다코샤(Bauddha Kośa)-유가행파의 숲어집 작성에 관하여’ ▷호리우치 도시오(日 도쿄대) 연구원이 ‘대승 불설과 비불설’ ▷가토 고지로(日 도쿄대) 연구원이 ‘해심밀경’의 티벳 사본 연구’를 주제발표 했다.

가토 연구원은 (해심밀경)의 산스크리트본이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경판 한역경전과 대루게 버전 등 티베트역 경전을 (유가론) 성립과 대조해 고찰했다.

‘해심밀경산스크리트(Saṃdhanir mocana-sūtra)은 300년 전후에 성립된 대승경전으로 (심밀해탈경)이라고도 한다. 다른 경전과는 달리 비로자나불이 인

간세계가 아닌 18원만의 화상세계에서 미륵·문수 등 지위가 높은 보살을 상대로 설한 보신보토(報身報土)의 설법이다. (유가론)을 많이 인용해 유가행파의 근본경전이다. 하지만 산스크리트 원전은 전하지 않고, 티베트어본과 한역본이 전한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당나라 현장이 한역한 (해심밀경)(5권8품)과 북위의 보리류지가 번역한 (심밀해탈경)(5권11품)이 완역으로 전한다. 부분역으로는 구나발타라의 (상속해탈경)(2권)과 진제의 (불설해탈경)(1권)이 있다.

이번 행사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2007년 선정된 HK사업 ‘불교고전,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천학 불교문화연구소장은 “이번 행사는 금강대와 日 도쿄대 신진 불교학자들이 학문적 교류를 시작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불 보물 지정

신홍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등 15건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등 15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 보물 지정된 문화재는 ‘보물 제1747호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보물 제1748호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보물 제1749호 속초 신홍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보물 제1750호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보물 제1751호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보물 제1752호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보물 제1753호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 ‘보물 제1754호 불설대보부도는중경판’ ‘보물 제1755호 양위산법’ ‘보물 제1756호 김홍남 호성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보물 제1757호 양산 신홍사 대광전 벽화’ ‘보물 제1758호 포항 중성리 신라비’ ‘보물 제694-(2)호 불조삼경’ ‘보물 제1564-(15)호 이순신 관련



보물지정된 통도사 은제도금 아미타여래 삼존상 및 복장유물

고문서’ ‘보물 제1564-(16)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 등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유도 및 사직사자도’ ‘서산 개심사 제석·법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 ‘금강반야경소론찬오조현록’ ‘봉화 청량사 건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제20차 학술기행 대만불교 참관기

동국대에 구심을 두고 있는 ‘한국불교사 연구소’의 제20차 강의기행을 다녀왔다. 한 학기 한 번씩 벌써 10년(2002-2012)째 진행되는 이 학술기행은 그동안 한국불교의 사관과 주제, 주제와 쟁점, 학통과 인물 등을 중심으로 한 강의기행을 넘어 이제는 중국과 일본 및 대만 불교와의 ‘교섭’과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 종래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과 중국과 홍콩 등은 같더라도 대만은 정작 비껴가고 말았다. 하지만 최근 대만은 경공업과 중산층을 기반으로 5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외환을 보유한 알짜 부자의 나라로 인도의 4대 불교성지 순례를 대체할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의 기행은 4천년 중국 문화유적을 안고 있는 대만고궁박물관에서 시작했다. 이어 불도유 삼교가 결합된 용산사와 대륙불교의 정신을 잇고 있는 현장사, 현대 불교 포교의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는 중대선사와 대만불교의 견인차이자 세계불교로 뻗어가는 불광산사 및 봉사와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 자제공덕회와 선법과 정토를 결합시켜 현대불교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법고산사 그리고 등신불교 교화하고 있는 자항사와 대만대학을 답사하면서 감동을 받았다.

먼저 중대선사는 임제선종을 선양하는 유각(惟覺)선사에 의해 대만 4대 사찰 중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도량이다. 연건평 2만 5천 평에 높이 36층, 115미터의 사내에 중앙집중식 구조로 설계한 현대식 사원이다. 각종마다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1층), 원만보신 노사나불(2층), 청정법신 비로자나불(3층)을 모시고 꼭대기에는 7층 목탑과 도서관을 두고 있다. 미국에 7개의 세 센터를 개설하고 홍콩 방콕 호주 등 전세계 100여 곳에 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초중고생 900여 명을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불교적 인간의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있다. 모든 사찰 살림은 출가와 재가 대중의 역할에 맞추어 자급자족하고 있다.

불광산사는 “좋은 일을 하고[做好事]”,

“좋은 말을 하고[說好話]”, “좋은 마음을 지니는[存好心]”의 삶의 방식을 통해 인간불교를 펼치는 성운(星雲)대사가 일으킨 도량이다. 반세기 동안 대만불교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전 세계를 향해 교육 복지 포교 봉사 등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대만 내의 불광대학과 남화대학을 필두로 하여 미국의 서래대학, 호주의 남천대학 등을 경영하고 있다. 불교위성TV, 불교일간지, 불광의료원, 22개의 도서관, 8개의 미술관 등 단일사찰로는 세계 최대의 포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성운대사는 ‘사람들에게 신심·기쁨[歡喜]·편리함[方便]·봉사[服務]를’이라는 원칙 아래 인간 대상에 정토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도 설법과 자선사업을 쉬지 않고 있다. 최근에 지은 불타기념관 내에는 인도불교 성지를 재현하여 대만을 불교성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출가자 감소하는 한국과 달리 대만 출가자는 계속 늘고 있어

최근 한국의 불자들은 우리 불교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만불교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다. 그 타켓은 ‘깨어있는 리더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그것에 기반한 대만 불자들의 불심이다. 대만은 ‘출가자들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기’에 ‘새로운 출가자와 재가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외국에서 출가후보자를 ‘귀오느’ 한국불교의 현실과는 크게 상반된다. 우리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우리가 소홀히 해 온 것은 모범적인 수행자의 삶이 저변화 되면 새로운 출가자가 늘어난다는 평범한 사실이다. 한국불교계가 우선 시 해야 할 것은 출가자들이 수행자 혹은 스승으로서의 위의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번 학술기행의 가장 큰 소득은 바로 이것이었다.

한국불교사연구소 역사철학기행팀



한 학기 한 번씩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동국대 한국불교사 강의기행. 일행은 2012년 2월 11-16일 대만불교를 참관하고 돌아왔다.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진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념 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진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맡기합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 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 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합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시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물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사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사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